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보도자료

2006.11.27(월)

2006.11.28(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Fax : 02-2100-8286,7

담당부서 : 물·자연팀

담당 : 김종연(☎02-2100-8269, e-mail:terraic@cwd.go.kr)

“지속가능한 치수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 “영, 독, 일 등 선진국 및 국제기구 치수전문가와 국내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국제 치수동향과 한국의 새로운 치수정책 방향을 논하다.”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11월 28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신대방동에 위치한 전문건설공제회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지속가능한 치수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일시 및 장소 : 2006.11.28(화), 전문건설공제회관 3층 국제회의장
- 주 최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
- 주 관 : 한국수자원공사
- 후 원 : 환경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환경관리공단

-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7월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한 산지 수해를 계기로 제기되고 있는 치수정책의 방향 전환에 대한 논의를 심화 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세계기상기구와 세계 물 파트너십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Associated Program for Flood Management(APFM)의 실무책임자인 Avinash Tyagi 씨가 참석하여 통합 홍수 관리(Integrated Flood Management)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된다. APFM이 치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는 통합적 홍수 관리적 접근은 홍수터의 유익한 면을 극대화하고 홍수 발생, 홍수 취약성과 위험으로 인한 인명의 손실을 감소시키며 생태계 및 그와 관련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합적 홍수관리는 시설적 수단과 비-시설적 수단,

토지 이용 계획과 물 관리 계획, 생태계 보존과 개발 수요, 그리고 단기와 장기적 수단을 통합하는 것이다.

- 독일 함부르크 기술대학의 Erik Pasche교수는 유럽에서의 치수 정책의 변환을 설명한다. 유럽은 댐과 제방의 건설에 강조점을 둔 시설 중심의 치수가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치수 방안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천변저류지의 확보와 같은 추가적인 친환경적 시설 대안의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유럽 연합 차원에서 2013년 12월까지 유럽 전체의 홍수 위험 지도의 작성을 의무화 하였다. 독일의 경우 이보다 빠른 2012년 5월10일까지 홍수 위험 지도의 작성을 의무화 하는 홍수법이 갖추어져 있다. 이 실행을 위해서 지리정보체계(GIS)와 수치 모형을 이용한 홍수 범람 위험 지도 작성법이 소개될 것이다. 또한 토지이용 관리와 재해 정보가 통합을 통한 유역 홍수관리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 영국지형학회(British Society for Geomorphology)의 회장인 글라스고 대학의 Paul Bishop 교수는 홍수터의 범위를 산정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와 그에 기반한 홍수지도의 근거 마련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유역 통합관리를 통한 치수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 일본 토목연구소의 Minoru Kuriki 국제협력과장은 2004년 이후의 일본의 치수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설명한다. 우리와 기상 여건이 유사한 일본은 제방 위주의 치수 정책에서 벗어나 지하하천, 천변 저류지와 같은 대안적 홍수방지 방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가 정책 방향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 일본 Tusukuba대학의 Yuichi Onda교수는 일본의 토사재해 방지 체계를 설명하면서 사방댐과 같은 시설물 방재와 함께 토사 재해 위험 지역을 구분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을 이주시키고 토지이용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방식이 병행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 한국 측에서는 건설기술연구원의 김원 수석연구원이 참석하여 금년 여름 수해의 원인에 대한 건설기술연구원의 원인 조사 결과와 대안을 발표 한다. 대안으로 유역 단위의 홍수관리제도의 시급한 도입과 홍수보험의 강화, 지역별 홍수관리 방안의 다양화를 제시한다. 국립방재연구소의 김지태 박사는 소방방재청이 마련중인 국가방재 대책의 개략적인 틀을 설명할 예정이다.
- 한편,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수자원연구소의 고익환 박사와 건설기술연구원의 우효섭 박사의 사회로 국립환경과학원의 신영규 박사, 수자원공사의 고덕구 박사, 금강물환경연구소의 김경현 박사 등 관련 부처연구소의 전문가들과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활동처장이 참석하여 발표자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된다.
-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결과들은 향후 국가 치수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 첨부 : 지속가능한 치수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프로그램

❖ 담당: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물·자연팀 김종연 전문위원 (02-2100-8270)
 건설교통부 수자원 정책팀 안정훈 서기관(02-2110-8420)
 환경부 유역제도과 이준희 사무관 (02-2110-6839)

지속가능한 치수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프로그램

International symposium on sustainable flood management of Korea

- 일시 및 장소 : 2006.11.28(화), 전문건설공제회관 3층 국제회의장
- 주 최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
- 주 관 : 한국수자원공사
- 후 원 : 환경부, 소방방재청, 산림청, 환경관리공단

제 1 부 : 개막식

09:00-09:40

사 회 : 우동식 팀장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회사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10분)

축 사 : 건설교통부 장관 (10분)

축 사 : 환경부 장관 (10분)

축 사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10분)

09:40-09:50 Coffee break

제 2 부 : 지속가능한 홍수관리정책

10:00 – 10:30 Mr. Avinash Tyagi

(Associated Program on Flood Management, WMO/Global Water partnership)

What is integrated flood management (IFM)?

10: 30 – 11:00 Prof. Dr. Erik Pasche

(Technische Universität Hamburg, Germany)

From fighting against flood to living with flood- the New EU policy and its consequences

11:00-11:30 Prof. Paul Bishop (British Society for Geomorphology, U.K)

Geomorphological approaches to flood management and catchment management

11:30-12:30 주제 토론

좌장: 고익환 박사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

고덕구 박사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연구원)

신영규 박사 (국립환경과학원)

양동윤 박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부 발표자 전원

12:30-14:00 중식 (3층 Gloria Hall)

제 3 부 : 한국에서의 지속가능한 홍수관리

14:00-14:30 Mr. Minoru Kuriki (Public Works Research Institute, Japan)

Flood management policy in Japan

14:30-15:00 Dr. Yuichi Onda (University of Tsukuba, Japan)

Debris flow disaster prevention system in Japan

15:00-15:30 Dr. Kim, Won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A proposal for new flood management policy in Korea

15:30-15:50 Dr. Kim, Ji Tae (National Institute for Disaster Prevention)

Korea's disaster prevention policy orientation

15:50-16:00 Coffee Break

16:00- 17:30 토론

좌장: 우효섭 박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경현 박사 (국립환경과학원)

염형철 처장 (환경운동연합)

2부/3부 외국인 발표자